

[기획]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6) 서울 SK텔레콤 '해피뮤직스쿨'

음악감독 자원봉사하는 첼리스트 송영훈 씨

음악 영재 꿈 키워가는 '희망 학교'

서울 덕수궁 인근에 위치한 예원학교는 예술가를 꿈꾸는 이들이 선택하는 학교 중 하나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또 하나의 특별한 학교가 이곳에 문을 연다.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해피뮤직스쿨'은 이곳에 등지를 들고 소외 계층 음악 영재들에게 체계적인 클래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 교육 문턱 낮춰

지난 4월의 마지막주 토요일, 두 대의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피아니스트 주희성(서울대 교수)씨와 오혜빈(성대중 1년)양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처음 보다 테크닉은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여, 연주할 때 페달을 너무 많이 밟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도 주의하고, 오른손은 잘 하는데 왼손은 연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구나."

혜빈양의 연주를 찬찬히 들던 주 교수가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직접 연주를 해보였고 혜빈양은 다시 한번 같은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다른 연습실에서는 첼리스트 송영훈씨와 조현준(예원학교 1년)군이 수업이 한창이었다. 지난해부터 송 씨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현준군은 현재 베네치아에서 진행중인 다초차나 국제 콩쿠르 본선에 진출한 상태다.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연습을 많이 못했나 보네. 연주는 무엇보다 자신있게 하는 게 중요해. 너처럼 힘 없이 시작하면 안돼. '빠방' 첫 시작이 강렬해야 해. 자, 선생님이 연주하는 걸 봐."

송 씨에게 자신의 첼로를 넘겨준 현준군은 선생님의 연주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며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사제시간을 넘어 친구처럼, 형과 동생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두 사람은 함께 열린 무대를 준비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SK텔레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해피뮤직스쿨'은 지난해 첫발을 땀다.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클래식 음악 교육의 문턱을 낮춰 문화 소외 계층 및 일반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 음악영재를 발굴해 성장급 연주자로 키우는 게 목적이다. '해피뮤직스쿨'은 미국 줄리아드 음대가



SK텔레콤의 '해피뮤직스쿨'은 소외 계층 음악 영재들에게 2년 과정의 클래식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예원학교에서 주희성 교수가 오혜빈양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운영 중인 MAP(The Music Advancement Program)을 벤치마킹했다. 지난해 1991년 줄리아드 음대가 뉴욕시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아프리카계, 라틴계)과 빈민 가정의 문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기획·운영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교육 프

해 다양한 음악을 접하는 실내와 프로그램, 음악사·청음 등에 대해 배우는 이론 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1년에 두차례 향상음악회를 연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의 서울 뿐 아니라 대전·부산·광주에서 교사와 재학생들이 함께 무대에 선 '해피뮤직스쿨 콘서트'를 개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 무대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게 큰 수확이었다.

여름방학 때는 전문가를 초청,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마틴 케빈, 캐서린 조 등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이 직접 참여, 학생들을 지도했고 올해도 줄리아드 음대와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운영하는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다.

백주영·현민자씨등 쟁쟁한 강사진

학생은 서류 심사도 참가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지난해에는 모두 45명이 입학했고 올해는 20명을 더 뽑았다.

아직은 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현재 구미와 대전 출신 중학생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다. 서울은 지역 학생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피뮤직스쿨'의 동력은 바로 자원봉사자도 참여하고 있는 쟁쟁한 강사진이다.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송영훈씨를 비롯해, 백주영(바이올린·서울대 음대 교수), 현민자(첼로·연세대 음대 명예교수), 주희성 씨가 각 분야의 파트장을 맡고 있으며 임가진(서울시교향악단)씨 등 음대 석사 과정 이상의 강사 12명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수한 역량을 보여준 클래식 영재에게 추가적인 교육 장학지원을 제공하는 등 해피뮤직스쿨이 소외계층 음악 영재를 키우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송영훈 음악감독이 조현준군에게 개인 레슨을 하고 있다.

“기술보단 마음이 중요하죠”

'해피뮤직스쿨'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첼리스트 송영훈(34)씨는 '오빠무대'를 들고 다니는 아티스트다.

예원학교 재학생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아드 음대에서 수학한 송 씨는 솔리스트 겸 MIK(미국음악협회) 활동을 하며 라디오 DJ(KBS FM '가정의 아침')도 맡고 있다.

국내의 활동으로 바쁜 송 씨였지만 처음 음악감독을 제의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했다.

"제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터라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다.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오리라 예상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영재학교가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희망을 만들어가고 꿈을 이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씨가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감이다.

"개인 연주회 준비도 해야하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매주 주말을 빼내 봉사한다는 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아이들을 배려하고 가르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니 선생님들도 많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참여하고 싶다는 선생님의 문의도 많거든요."

실기 오디션은 송 씨를 비롯한 선생님이 가장 설레는 시간이다. 이번에는 어떤 음악적 감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만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좋은 음악적 감성을 갖고 있는 아이를 발굴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또 인터뷰를 하며 성격도 봐요. 밝고 적극적인 아이들이 아무래도 더 잘 받아들여거든요."

송 씨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말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지만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친하게도 하지만 경쟁의 긴장감도 느껴져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송 씨는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선생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 참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눔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가십시오. 작은 목소리로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향기로움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 223-1140, 210 111-822-253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들입니다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 223-8216 111-609-0936
상가건물 매도
-골문로 대로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로지 230㎡(70평) 5층 18억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223-5221 111-609-5221
▶ 빌딩
-대지 600 건물 1,352 보 36억/월세 3,000만원(지역최고 상권)용지12억매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신원 책임)
(☎) 010-8572-8985
구합니다.
시내주유소구함
임대소속이 많은 상가건물구함.

금보부동산컨설팅
(☎) 281-8949 111-602-2233
▶ 토지매매
-신곡 광장동 산50번지 181㎡(54평) 대지 4000평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효율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 973-9174, 018-757-8800
수원지구 상업용지
3천여평 40억(명당 470만)
200평 22억(명당 1100만)

한일지도판매(주)
(☎) 528-1408 010-2466-1408 (전통) 527-6310, 011-9433-6310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함흥·정읍·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